

# 톡톡 튀는 공학설계 작품 '한자리에'

### 전북대 산학협력페스티벌 성황리 열려 공학설계 경진대회 등 창의적 아이디어 눈길

전북대학교 학생들의 톡톡 튀는 우수한 공학설계 작품을 한자리에 만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2018 CBNU LINC+ 산학협력 페스티벌이 26일 진수당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고동호 총장 직무대리(교무처장)를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와 외부인사 및 지도교수, 학생, 가족회사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하루 종일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산학협력 페스티벌에는 LINC+ 사업단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참여수기 공모전 수상, 현장실습 우수기업 시상과 함께 9개팀 408명이 참여한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와 육선 마켓이 운영됐다.

학생 수기 공모전 대상은 경영학부 유현비 학생을 비롯해 사업단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총 15명의 학생이 수상했고, 현장실습 우수기업

에는 스페이스코웨이 선정됐다.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는 화학공학부 박주영, 하지수, 추동우, 백서연, 신하연, 강지혜 학생들이 이루어진 '공화당 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팀은 에틸렌 가스를 흡수하며 성장하는 미세 조류인 *Chlorella Vulgaris*를 활용해 과일의 과일의 신선도 기간을 증가시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친환경적인 방안을 담은 작품을 선보였다. 이 작품은 환경보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날 심사위원들은 "올해 경진대회의 심사에 문제분석 및 창의적 해결 능력을 심사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참고하였으며, 2018 CBNU LINC+ 페스티벌을 통해 전북대학교 학생들의 창의력을 확인하였으며,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 실용화 가능성이 큰 아이



'CBNU LINC+ 산학협력 페스티벌'이 26일 전북대 진수당 일원에서 열렸다.

디어들이 많이 있었다"며 소감을 남겼다.

고영호 LINC+사업단장은 "이번 산학협력 페스티벌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 융합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학교의 실효성 있는 교육, 지역 산업들이 연계하여 기술과 사업화가 함께 이루어져 지역 사회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정읍수성초 학부모회, 전교생에게 특별한 선물 전달

지난 24일 정읍수성초등학교 전교생(337명) 및 병설 유치원 학생들(22명)에게 특별한 선물이 전달됐다.

정읍수성초등학교 학부모회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옛날과자(오란다)를 만들어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눠 준 것이다. 앞서 7일 정읍수성초 학부모회에서 학부모 체험교실로 옛날과자(오란다) 만들기를 실시했다. 이때 오란다 만드는 방법을 학부모들이 배우게 되었는데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오란다를 만들어 주자는 생각이 모이게 되었다.

이제유 학부모회장을 비롯한 생각을 같이 하게 된 학부모회 회원분들은 바쁜 와중에 틈틈이 모여 오란다를 직접 만들고 포장까지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읍수성초 및 병설 유치원 학생들에게 선물로 전달해 주었다. 생각치 못한 깜짝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매우 기뻐하며 어느 때보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게 되었다.

이제유 학부모 회장은 "학부모회 회원분들과 함께 오란다를 만드는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민주·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 기여

#### 오늘 학생참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늘 오후 4시 학생인권교육센터 2층 인권교육실에서 제6기 학생참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6기 학생참여위원회는 초등학생 5명, 중학생 17명, 고등학교 28명 등 총 50명으로 꾸러졌으며 지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의 출범식을 가진 바 있다. 학생참여위원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 41조에 따라 학생인권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학생위원회는 그동안 '4월 2일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제정', '학생체벌 금지', '학생자치 활성화' 등의 교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토론회를 진행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학생인권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학생 인권 실현과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27일 2019년 1월 1일자 신규 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 전북교육청,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 교육행정직 70명 등 총 87명

전북도교육청은 27일 2019년 1월 1일자 신규 공무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신규 임용 공무원 87명에게 일일이 임용장을 수여하고, 악수하며 새출발을 축하했다. 또 '일회용품 없는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개인컵을 축하선물로 증정했다.

도교육청의 신규 공무원 임용장 수여는 가족들이 함께 참여해 축하하는

자리로, 공무원증을 부모·배우자·친지 등이 직접 목에 걸어주면서 의미를 더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여러분의 첫 출발을 축하한다. 앞으로 여러분의 길이 새로운 길이 되는 것은 각자의 몫"이라면서 "늘 새로운 것을 느끼면서 공직생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육감 함께 참여한 가족들을 향해는 "자녀를 잘 키워서 전북

교육청에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제부터는 전북교육청이 지켜드릴 것이며,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임명장을 받은 신규 공무원은 교육행정직 70명·시설직 1명·공업직 5명·운전직 11명 등 총 87명으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해 발령했다.

/장은성 기자



삼영정화초 배도현 대표 및 직원들이 지난 20일 김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김제지역 학생들을 위해 희망나눔 도서(130만원)를 기증했다.

### "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 삼영정화초, 김제교육지원청에 희망나눔 도서 전달

김제시 교월동 삼영정화초 배도현 대표 및 직원들이 지난 20일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효순)을 방문해 김제지역 학생들을 위해 희망나눔 도서(130만원)를 기증했다.

삼영정화초는 2017년 교월동 착한가게에 가입해 매월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에 후원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배도현 대표는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며, "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에게 책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내 6개 학교를 대표해 벽량초 소속 교장이 전달식에 참석했으며, 삼영정화초가 기증한 도서는 김제 벽량초를 포함해 총 6개 학교 110여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제교육지원청 김효순 교육장은 "우리지역의 학생을 위해 도서기증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긴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좋은 책을 읽으며 꿈과 희망이 한 뼘 더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